AA idea

2021. 1. 27

실적시즌에 돋보이고 있는 기술주

국내증시 이번 4분기 실적전망을 집계해보면, 가파른 증시 상승에 실망을 안겨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 특히, 운송/자동차/제약바이오/소프트웨어/IT하드웨어 업종은 지난 분기와 비교해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주목할 부분은 성장주들의 양호한 실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으로 한국증시 대표 성장주 지수인 KRX BBIG K뉴딜지수에 속하는 12종목들의 시장대비 매출액과 영업익 비중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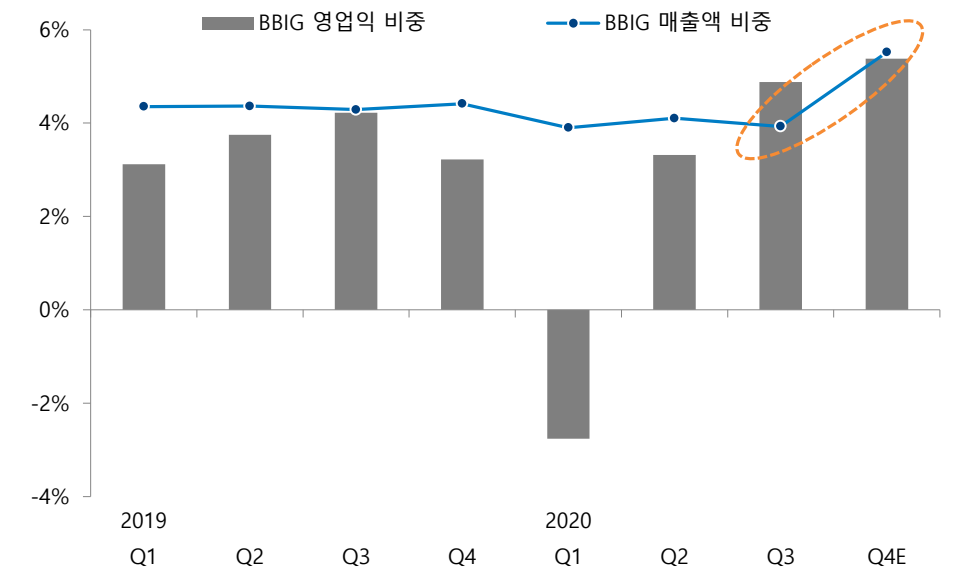
이는 미국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성장주 비중이 높은 IT섹터는 여타 섹터 대비 가장 나은 순이익마진과 함께 과거 5년과 비교해도 더 나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실적에 대한 긍정적 가이던스 제시한 기업도 IT 섹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성장주 중심의 양호한 실적과 함께 여전히 완화적 금융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 최근 시장금리가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당장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과 미국 추가 부양책이 3월 중순에야 의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은 시장금리 상승세를 늦출 것으로 기대.

이는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으로 당장은 성장주의 상대적 강세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됨.

북반구 동계시즌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국의 방역을 위한 대응조치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 다만, 2020년 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일부 진정되면서 봉쇄 조치가 해제된 것처럼 올해도 봄이 가까워질수록 백신접종 본격화와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 독일은 2월15일에 봉쇄 해제를 예고한 상태. 이는 경제활동 재개 및 경기회복 기대를 높여 향후 경기민감주 비중 높은 가치주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전망.

이번 실적발표 시즌에 한국증시 대표 성장주 지수인 BBIG 지수에 속한 12종목의 시장대비 매출액과 영업익의 비중 개선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집계됨. 이들 기업들은 2021년에도 매출액 비중은 6% 상회, 영업익 비중은 6%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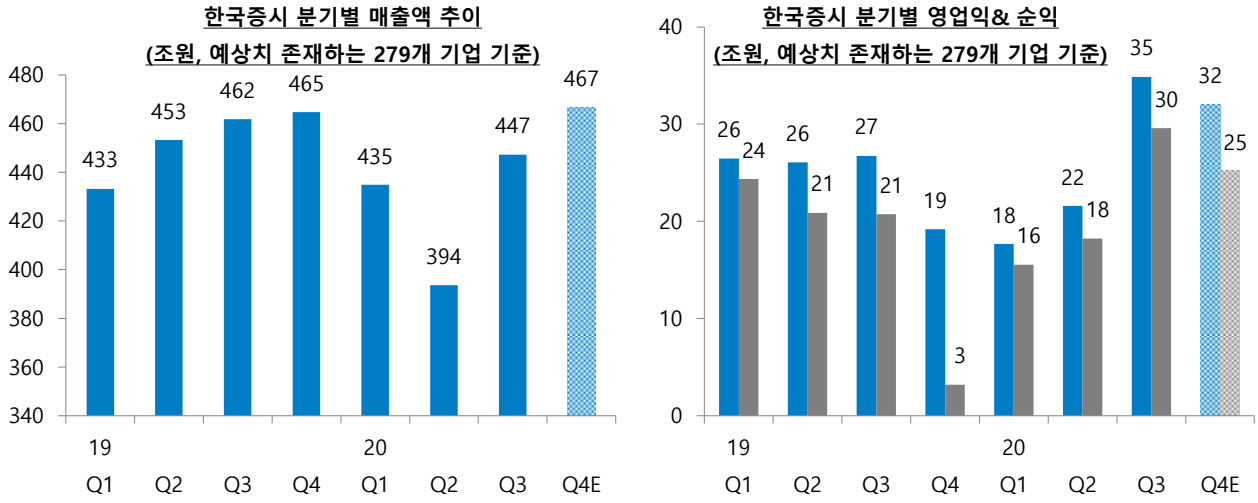


자산배분 장희종
2122-9182
hjchang@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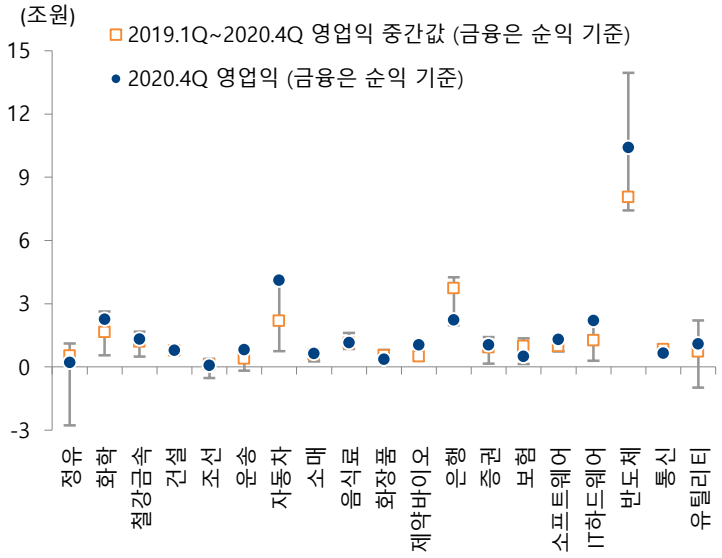
국내증시 4분기 견조한 실적 전망

지난 11월 백신 개발 소식 이후 증시는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실적시즌을 맞이함. 이번 4분기 실적전망을 집계해보면, 가파른 증시 상승에 실망을 안겨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 특히, 운송/자동차/제약바이오/소프트웨어/IT하드웨어 업종이 지난 분기와 비교해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

<그림1> 예상치 존재하는 주요 기업 279 기준으로 국내증시 4분기 매출액은 467조원으로 지난 3분기 보다 약 4% 가량 증가, 영업익은 32조원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전망(매출액과 영업익은 비금융 기업 기준, 순익은 금융사 포함)



<그림2> 업종별로 2019년 1분기부터 7개 분기 실적과 이번 4분기를 비교하면, 운송/자동차/제약바이오/소프트웨어/IT하드웨어 업종이 최상단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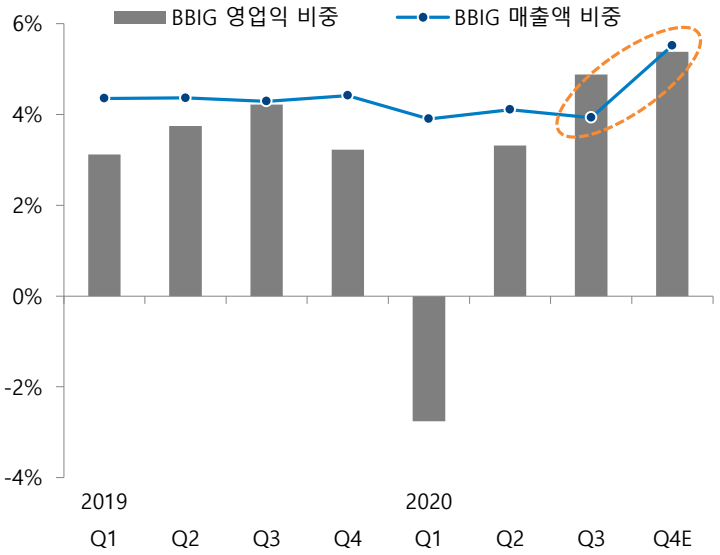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의 8개 분기의 상단&하단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운송/자동차/제약바이오/소프트웨어/IT하드웨어 업종의 이번 4분기 실적이 최상단에 위치

8개 분기 중간값 대비 화학/철강/소매/증권/반도체/유틸리티 업종의 4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전망됨.

이번 실적시즌은 성장주들의 양호한 실적 돋보여

주목할 부분은 성장주들의 양호한 실적이 두드러진다는 점. 한국증시 대표 성장주 지수인 KRX BBIG K뉴딜지수에 속하는 12종목들의 시장대비 매출액과 영업익 비중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 이는 미국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성장주 비중이 높은 IT섹터가 가장 나은 순이익마진과 긍정적 가이던스 제시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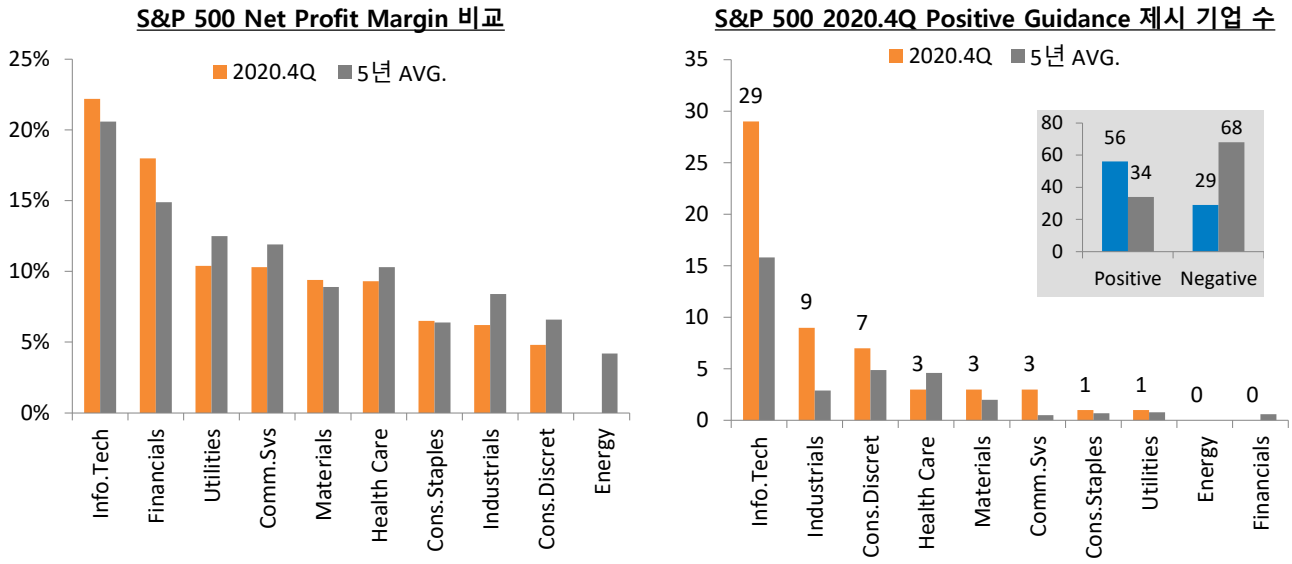
<그림3> 한국증시 대표 성장주 지수인 BBIG 지수에 속한 12종목의 시장대비 매출액과 영업익의 비중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2020년 4분기 실적에서 KRX BBIG K 뉴딜지수에 속하는 12종목이 시장대비 매출액 비중은 5.5%, 영업익 비중은 5.4% 전망. 이는 3분기 매출액 비중 3.9%, 영업익 비중 4.9%에 비해 뚜렷한 증가

2021년에도 매출액 비중은 6% 상회, 영업익 비중은 6%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4> FactSet 자료에 따르면, 미국증시 역시 성장주 비중 높은 IT섹터가 높은 순이익마진이 기대됨. 또한 이번 실적시즌 가이던스를 제시한 85개 기업 중 56개가 긍정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5년 평균인 34개 보다 높고,. 섹터 중에는 IT 섹터가 가장 많은 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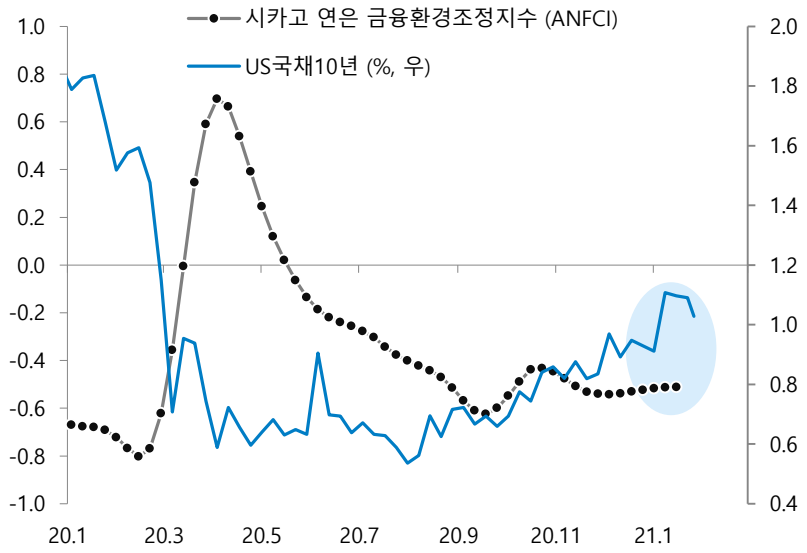
당장은 성장주에 유리한 상황

성장주 중심의 양호한 실적과 함께 여전히 완화적 금융환경도 성장주에 유리한 상황. 최근 시장금리가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당장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과 미국 추가 부양책이 3월 중순에야 의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은 시장금리 상승세를 늦출 것으로 기대. 당장은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을 감안하면 성장주의 상대적 강세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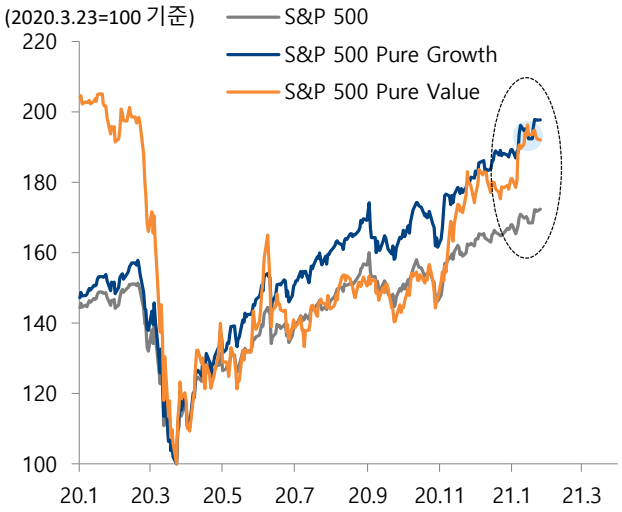
시카로 연은에서 산출하는 금융환경지수는 여전히 (-)권으로 완화적 금융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시장금리도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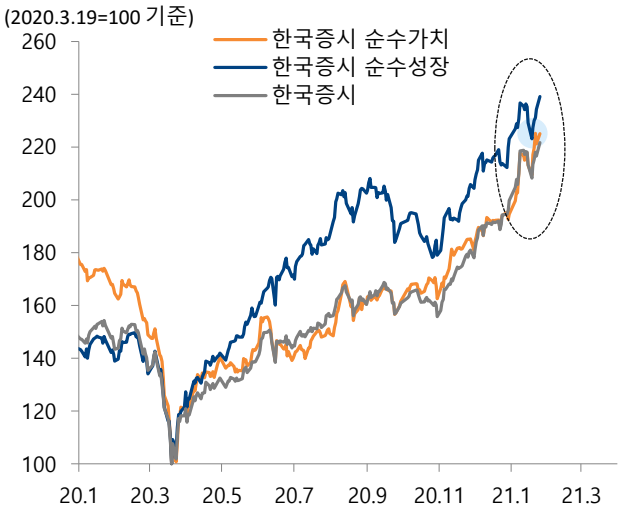
당장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과 더딘 실물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시장금리 상승세 역시 더딜 수 밖에 없고 이는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

<그림5> 최근 시장금리가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금융환경도 여전히 완화적인 상황



<그림6> 미국과 한국증시 모두 작년 3월 저점 이후 성장주 중심 뚜렷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작년 연말에는 가치주 역시 성장주에 육박하는 높은 상승률 기록. 당장은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을 감안하면 성장주의 상대적 강세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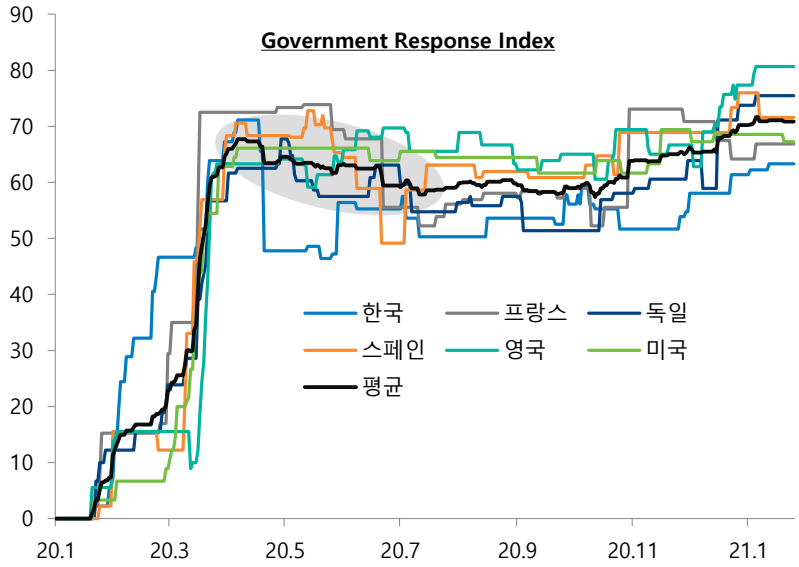
경기회복세 흐름이 유효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

북반구 동계시즌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국의 방역을 위한 대응조치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 다만, 2020년 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일부 진정되면서 봉쇄 조치가 해제된 것처럼 올해도 봄이 가까워질수록 백신 접종 본격화와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 독일은 2월15일에 봉쇄 해제를 예고한 상태. 이는 경제활동 재개 및 경기회복 기대를 높여 향후 경기민감주 비중 높은 가치주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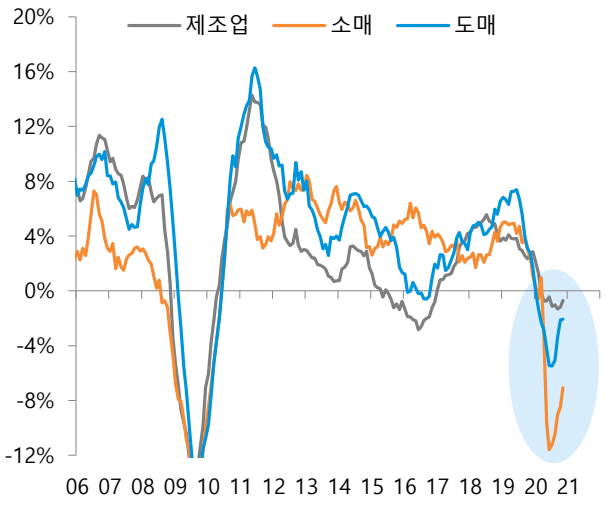
옥스퍼드 대학에서 산출한 국가별 방역 대응 강도 지수(Government Response Index)는 최근 다시 높아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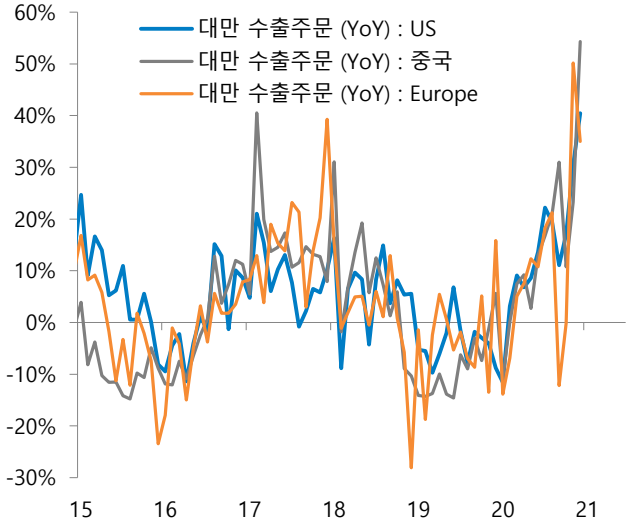
다만, 작년 4월과 같이 올해에도 봄이 가까워질수록 백신접종 본격화와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 이는 경제활동 재개와 경기회복 기대를 높여 경기민감주 비중 높은 가치주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

<그림7>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주요국 당국의 대응조치 강도는 다시 높아진 상황. 다만, 백신접종과 함께 동계시즌이 지나면 다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



<그림8> 미국 제조업 증가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 재고확충을 위한 생산 수요만으로도 경기회복세 지속 전망. 글로벌 경기 및 한국 수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대만 수출주문 증가율은 최근 호조세 지속 중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장희종)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